불평등에 관하여

"1대 99의 사회"라는 표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지적했듯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해왔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세습된 부에 의해 지배되는 신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그의 경고는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다.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고소득층의 소득분포를 보정하여 발표하는 신지니계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OECD 상위권에 속할 만큼 높은 편으로 이제 더 이상 평등한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평등이란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센이 "Equality of what?"이라는 역사적인 강연에서 던진 질문과 같이 불평등은 여러 가지 양태로 발현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득의 불평등이 있고, 이와 더불어 자산의 불평등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소득의 불평등은 흔히 다른 분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육 불평등, 건강 불평등, 주거 불평등 등은 이의 좋은 예이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정치참여의 불평등이나 기회의 불평등도 들 수 있다. 이처럼 불평등이 갖는 다양한 양태는 불평등이라는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학문적인 주제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불평등은 경제학뿐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등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동시에 다뤄지고 있는 흔치 않은 주제이다.

정부학연구의 이번 기획특집은 이러한 다학문적인 시각에서 불평등 현상을 조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분야에서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저자들의 논문 네 편을 소개한다. 각각의 논문은 상이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의 지적 생산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지만, 함께 읽으면 독자들이 불평등이라는 현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먼저 배종훈 교수의 논문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변화가 가져올 불평등의 심화를 노동과 일자리 측면에서 설

명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이우진 교수의 논문과 권혁용 교수·한서빈의 논문이 다루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하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논문들이 다루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배종훈 교수의 "경영과 불평등: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이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변화가 노동과 일자리에 가져 올 혁명적 변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저임금 단순작업이 자동화로 대체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요소의 분할가능성을 높여 경영의 영역에 속하는 중간 단계의 자원배분 활동까지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 교수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서 노동은 점점 더 파편화되어 전일제 중심 단일작업 행위(하나의 직장에서 한 가지 일을 함)에서 시간제 중심 다중작업 행위(여러 개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함)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배 교수의 글은 이러한 추세를 따르게 된다면 미래의 노동시장이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고임금 노동자와 파편화된 다중 작업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양분되는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의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이다. 이 글은 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는 소득과 자산, 기회의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주원인이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피케티가 불평등의 심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현상을 들었던 것을 상기해볼 때, 동일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세 번째 논문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권혁용 교수와 석사과정 한서빈의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사례 연구, 2003-2014"이다. 이 글은 불평등을 이전의 논문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앞서 불평등을 소득, 자산, 노동, 일자리, 기회 등의 측면에서 본 경제, 경영 분야의 연구와 달리 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득과 투표참여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권 교수의 글은 2003년에서 2014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투표참여에 있어 소득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였음을 통시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논문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이주하 교수의 “전환기적 사회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이 글은 앞에서 소개한 세 편의 논문이 제기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답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교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공적이전소득 중심의 전통적 사회정책과 함께 조세정책, 고용정책, 사회투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광의의 불평등 해소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 네 편의 논문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중심의 지식사회에 도래하게 될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 자산, 기회, 정치참여의 불평등 현상과 더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접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정부학연구는 다학문적 성격을 가진 불평등 연구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에게 담론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기획특집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꾸준히 모이게 된다면 학문적으로는 불평등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현실적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글을 정부학연구 불평등 기획특집에 기고해 주신 저자들께 감사드린다.

편집위원장 구교준